“경봉 스님 인재불사 원력 선양”

경봉문도회, 6월 29일 경봉 스님 추모다례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경봉 스님의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추모다례재서 경봉장학회는 장학금을 수여하며 경봉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을 기렸다.

경봉문도회(대표 무애)는 6월 29일 경봉 선사 열반 37주기 추모다례재를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경봉문도회장 무애 스님,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명 스님,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 대표 무애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를 이어 자비와 지혜의 광명으로 행복을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봉장학회는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31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 총 3100만원을 전달했으며, 호국선원, 보광선원,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 수행지원비 및 연구비 800만원을 기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예비국악인 격려한 특별 템플스테이

화엄사, 대학생 위한 정가학회 공연 지원

산사에서 전통음악을 즐기는 특별한 음악회가 화엄사에서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6월 30일 보제루에서 ‘화엄사 특별공연-정가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음악회는 국악단체인 정가학회가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국악전공 대학생들에게 격려와 영감을 주기위해 특별시연을 마련한 것이다.

정가학회는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전문 국악단체다. ‘2019 국악대학전’의 워크숍 일환으로 진행한 화엄사 템플스테이에는 예비국악인 60여 명이 참여해 29일부터 3박4일간 특강, 마스터 클래스, 상상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악대학전은 국악 전공 대학생들이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자 경합을 무대다. 가곡, 판소리, 산조 세 분야에 걸쳐 진행하며, 우승자는 오는 9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화엄음악제에서 공연과 음원 발매를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화엄사는 국악 예술인들을 지원하고자 이번 템플스테이와 화엄음악제-화장(華藏)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삼광사 ‘孝心 피운 연꽃 화엄세상’

제 6회 효문화 연꽃축제 개막

천태종 삼광사가 연꽃으로 화장세계를 연출했다.<사진>

삼광사(주지 세운)는 7월 1일 경내에서 제6회 효문화 연꽃축제 개막식을 진행했다. 효문화연꽃축제는 지난 4월 경로잔치어울림한마당에 이어 진행한 행사이며 연꽃 전시는 9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연꽃축제 개막식은 테이프 커팅에 이어 인사말이 진행됐으며 주지 세운 스님을 비롯해 김희근 신도회장 등 내빈이 동참했다. 연꽃축제는 대한불교천태종이 주최하며 삼광사가 주관, 문화



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마련됐다.

삼광사는 “연꽃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더운 여름 열기를 식히고 산사의 아름다움을 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佛都 10만 불자 ‘불교 중흥’ 외친다

10월 20일 ‘부산시민 번영을 위한 불교문화축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중흥과 국가발전을 위해 불도(佛都) 부산 불자 10만 명이 운집한다.

불교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경선 · 박수관)는 불교중흥과 시민번영을 기원하는 ‘부산시민의 번영을 위한 불교문화축제’ 기획 발표회를 7월 1일 부산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했다.

‘부산시민의 번영을 위한 불교문화축제’는 10월 20일 오후 4시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다. 불 · 법 · 승 삼보를 예경하며 나눔으로 자비사상을 실천해 불교정신을 사회에 보여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불(佛)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법(法)은 이 시대 선지식으로 불리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 승(僧)은 부산 및 경남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동참해 10만 불자의 예경을 받는 자리로 진행된다. 이어 오직 나눔으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회향하며 불자의 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통해 부산불교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위상을 강화해 불교중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자비실천의 장을 제공하고 10만 불자가 모여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대적인 자리라고 소개했다.

조직위원장 경선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은 “뜻과 행동이 하나가 돼 열정과

불 · 법 · 승 삼보예경 주제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비롯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법문
동참 모연금 복지시설 기부도

신념으로 함께 할 때 성공적인 행사를 보여주며 불교의 위상을 높이 세울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함께 뛰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 주제는 △불교문화계승 △불교중흥 △사회공헌 △시민과 함께하는 어



부산불교가 불교중흥을 꿈꾸며 ‘부산시민의 번영을 위한 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7월 1일 불교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는 기획 발표회를 개최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울림 한마당이다. 불교문화계승은 백고좌법회를 재현하며 스님들에게 예경을 올리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며 신심을 고취한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건봉사 부처님 치아 진신사리다. 건봉사 치아 진신사리는 자장율사가 신라시대 가져온 사리 가운데 유일하게 친견이 가능한 사리다.

불교문화축제는 오후 2시 집결해 식전공연으로 시작된다. 본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육법공양 △진신사리 헌화공양 △고불문 △개회선언 및 경과보고 △봉행사 △봉축사 △격려사 △축사 △대회사 △법어 △2019 부산불교선언문 낭독 △불교중흥 및 시민안녕 기원 프로그램 △사회나눔 △축가 순으로 이어진다.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는 풍등 날리기, 가수 송가인 및 아이돌 가수가 꾸미는 공연, 진신사리 친견, 불꽃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풍등은 총 1만개가 마련되며, 이웃돕기에서는 쌀 1000포를 전달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보시함을 설치, 모금액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한다.

박수관 조직위원장은 “10만 불자가 모이는 대대적인 행사로 불교의 중흥을 꿈꾸며 화합의 한마당으로 이끌 것”이라며 “신심의 축제로서 불도 부산에 큰 메시지도 남기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감동 남긴 영산작법

모스크바 국제음악 페스티벌
전라북도영산작법 초청 공연

전통불교의식인 영산작법(일암범패)이 러시아에서 펼쳐져 현지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영산작법무형문화재 제18호였던 故 일암 스님의 이수자인 지산 스님을 비롯해 용봉사 법전 스님, 영천사 현법 스님, 익산 대인사 지오 스님 등은 6월 24일 러시아 한국문화원과 차이코프스키음악원의 초청으로 모스크바 국제음악 페스티벌 소리축제에 참가해 불교전통의식인 영산작법을 러시아 현지인들에게 선보였다.

‘우주의 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모스크바 국제음악 페스티벌 소리축제에 참가한 스님들은 모스크바시 에피르 아트센터 특설 무대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다게작법, 천수바라, 운심게 작법, 기성가지 바라춤 등 한국의 전통 영산작법을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한 음악인은 물론 관



모스크바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된 스님들이 전라북도영산작법을 선보이고 있다.

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연에서 관객들은 처음 접하는 한국불교의 작법무와 범패 소리로 구성된 영산작법의식을 처음부터 숨죽이며 관람하고,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다는 후문이다.

공연을 직접 관람한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마르가리타 국제대외협력국장은 “한국불교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다음에는 좀 더 크고 멋진 무대에서 영산작법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법전 스님은 “한국의 영산작법을 전 세계의 문화관계자들과 러시아 관객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주어져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간의 문화콘텐츠가 계속 이어져 전라북도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광주불교 후원 나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 신광사 주지)는 6월 26일 광주광역시청을 방문, 이용섭 시장에게 ‘2019 광주국제수영선수권대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입장권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대회 활성화를 위해 사찰들이 십시일반 입장권을 구매해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회장 동현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부회장 도성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현 스님은 “이번 수영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16일간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193개국 7266명이 참여해 다이빙, 하이다이빙, 경영, 아티스틱 수영, 오픈워터 수영, 수구 등 6개 종목에서 금메달 186개를 놓고 승부를 벌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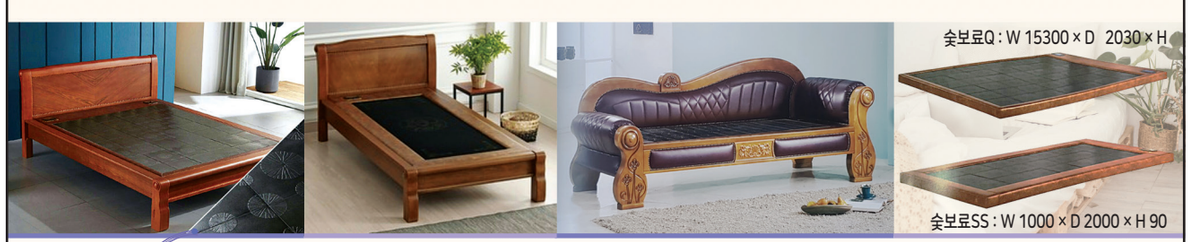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